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정책에 관한 연구

최병철
경제학과

<요 약>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6년간 중국은 22만건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승인하였으며, 투자 실행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이 도입한 외국자본은 국내의 자금부족을 해결해 주고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방식의 이전을 통해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치중해온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투자유치정책은 무분별한 경쟁을 유발, 경기과열을 조장하고 산업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켰으며, 연해지역 우대정책은 지역발전 격차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위주에서 안정과 효율성 제고방향으로 전환하여 1995년부터 외국인 투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선별적 외자도입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변화는 鄧小平 死後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긴축정책, 토지, 임금비용 인상 등 현지 경영여건 악화 등과 결합하여 대중 외국인투자가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잠재시장으로의 부상으로 외국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대중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생산효율형 투자와 함께 앞으로는 시장추구형 투자가 급속하게 증대 될 것이며, 각국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Choi, Byong-Cheol
Dept. of Economics

<Abstracts>

Since the Joint Venture Law was promulgated in 1979, China has made great strides

in encouraging and absorb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has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developing its foreign investment policies and laws, and improving the operating environment for foreign enterprises. The results are impressive : by the end of 1994, China had approved more than 221,000 foreign investment contracts for a total of over US\$ 956.4 billion.

The import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is evident both in its magnitude and the role of foreign-invested firms in generating exports. But FDI policy in China which is focused on the labor-intensive light industries, give rise to excessive competition, fostering business overheating, and expanding gaps of inter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China's government changes its FDI policy to selective FDI policy from 1995.

Such changes are main causes to decrease in FDI recently, with environmental expectation of after Deng's situation, political uncertainty, and other economic problems. Nevertheless, foreign enterprises plan to expanding its investment in order to access China's huge domestic market in the long-run.

I. 서 론

중국은 1979년 이후 직접투자 및 위탁가공 도입과 관련한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해 왔다. 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방의 내용은 개방지역의 확대, 직접투자 관련 법규의 정비, 개방의 대상이 되는 산업부문의 점진적 확대이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본, 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공급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외국기업들도 중국의 풍부한 저임노동력, 광대한 잠재적 시장규모, 다양한 천연자원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199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은 국내의 자금부족을 해결해 주고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방식의 이전을 통해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전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외자도입정책은 주로 경제특구와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발구, 내륙경제개발구라는 개발지구에 따라 외자의 우선권을 주어왔다. 1992년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이전 3년간의 실적을 상회하는 4만 8,764건에 11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같은 추세는 1993년까지 이어져 1992년도의 실적에 비해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왔던 백화점 등 국내 도·소매업, 운송, 경영컨설팅, 보험업 등 일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합작투자도 시험적으로 허용하였다. 따라서 국내 유통부문의 개방이 갖는 중요성은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형태에 있어서 일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의 생산효율형 투자와 함께 앞으로는 시장추구형 투자가 급속하게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와동시에 각국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과 경제체제개혁의 심화에 따라 외자도입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양적 확대에 치중해온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투자유치정책은 무분별한 경쟁을 유발, 경기과열을 조장하고 산업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켰으며, 연해지역 우대정책은 지역발전 격차를 확대시켰다. 또한 노동집약적 소규모 투자기업들을 중심으

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노사분규가 빈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규모 외자도입이 통화팽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1994년 이후부터 외자기업에 대한 회계, 재무감사 실시, 노동조건 강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정책과 외자유치정책의 연결하여 선별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외국인 투자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변화는 鄧小平 死後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축정책, 토지, 임금비용 인상 등 현지 경영여건 악화 등과 결합하여 대중 외국인투자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잠재시장으로의 부상으로 외국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대중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변화과정과 도입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특징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 II장에서는 1979년 이후 직접투자와 위탁가공 도입과 관련한 대외개방 정책을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변화과정과 도입현황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를 투자형태별, 국가별, 지역별, 그리고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과 역할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II. 대외개방 정책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80년 廣東省과 福建省의 4개 경제특구 설치로 부터 1984년 14개 연해개방도시의 설치로 이어지는 기간이다. 제2단계는 1988년의 山東반도 개방구, 遼東반도 개방구 및 環渤海 개방구의 개방시기이며, 제3단계는 1990년 上海 浦東개발구로 부터 4개 沿開放으로 불리워지는 全方位 지역정책의 추진 기간이다.¹⁾

1. 제1단계(1979-1984)

중국에서 대외개방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은 廣東省과 福建省이었다. 1979년 7월 중앙정부는 두 省의 대외활동을 포함한 경제운영에 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외화수입 유보제와 재정 청부제 같은 특수정책과 단력적인 조치를 실시하였고, 1980년 8월에는 廣東省의 심천, 珠海, 汕頭와 福建省의 廈門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 1984년부터 개방지역이 廣東省과 福建省에서 연해지역 전역으로 확대되어 點에서 線으로 이어졌다. 1984년 4월에는 14개 연해항만도시가 개방되었는데 특히, 이들 연해개방도시에는 외자와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업도시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되었다.²⁾

1) 「중국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pp.379-380.

2) 양평섭, 안중식,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중투자」, 19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pp.11-12.

2. 제2단계(1985-1989)

1985년 2월에는 長江과 朱江,민남.廈門 주변의 3개 삼각주에 연해경제개방구가 설치되었다. 이들 지역은 개방도시와는 달리 도시지역 외에도 縣(농촌)을 포함함으로써 개방지역이 線에서 面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되었다. 1988년 1월 趙紫陽의 연해지구경제발전전략에 따라 3개 삼각주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으며,3월에는 山東반도,遼東반도,環渤海지구의 일부 시 및 연해개방도시의 관할 현이 연해개방구로 지정되었다. 이어 7월에는 대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海南島를 省으로 승격시켜 5번째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3. 제3단계(1990-)

이러한 대외개방지역의 확대과정은 계속되어 1990년에는 上海의 浦東지역을 종합적인 공업.상업.무역.금융 중심지로 개발하여 제2의 홍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2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대외개방은 4沿開放으로 불리워지는 全方位 지역개방,3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허용 등 전면적 대외개방과 GATT 가입,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무역체제개혁으로 특징지어진다. 전방위 개방은 '南巡講話'와 「당 중앙 4호 문건」 그리고 5개의 長江연안도시와 15개 省都에 대한 개방으로 이어졌다. 특히 「4호 문건」에서는 기존의 경제특구,개방도시,연해개방구의 대외개방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내륙지역과 국경지역을 개방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연해지역 개방의 가속화로서 洋浦港 개발과 海南省의 洋浦지구,靑島,蘇州(張家港),寧波,廈門 지역에서의 보세구³⁾ 추가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국무원은 長江연안의 重慶,岳陽,武漢,九江,蕪湖 등 5개 도시에 대해 연해개방도시와 동일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경도시를 위해서 국무원은 滿洲里,綏芬河,黑河,琿春 등에 대해 경제특구에 준하는 대외무역관리 권한을 부여하였고, 遼寧省의 丹東市를 변경무역구로 추가 지정하였다. 그리고 新疆 위구르자치주의 塔城市,博樂市,伊寧市,우루무치시가 개방된데 이어, 南寧市,憑祥市,東興鎮(廣西장족자치구), 昆明市, 腕酃市, 瑞麗縣, 河口縣(雲南省) 등 서남의 베트남, 인도,파키스탄에 접한 7개 市(縣,鎮)을 국경도시로 개방하였다. 또한 連運港에서 우루무치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동서간 철도와 京廣線(北京-廣州)과 京哈線(北京-하얼빈) 등 남북간 철도에 연결해 있는 내륙의 省都에 연해개방도시와 동일한 권한과 우대조치가 부여되었다. 최근에는 중국의 낙후지역과 연해지역을 연계하여 7대 공동경제발전지구로 개발.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개방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⁴⁾

중국정부는 이러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에게 소득세를 3년간 유예하고 수출입관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면서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다⁵⁾. 외국인 기업들이 특구를 외면하는 이유로는 이 지역의 임금이 지나치게 상승하였고,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

3) 보세구는 자유무역구 또는 자유항과 유사한 개념으로 무역,창고,가공,중계무역,금융,부동산 개발업무가 가능하며,보세구에서는 개발구와 특구에서 적용되는 우대조치가 실시된다.

4) 7대지구는 上海의 浦東을 중심으로 하는 長江연안지구,珠紅삼각주지구,北京,天津,河北,山東,遼寧으로 이어지는 環渤海지구,西南 및 華南지구,西北지구,中原지구,東北지구 등이다.

5) 1994년 5개 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액기준으로 93년에 비해 40.5%가 감소하여 중국전역의 외국인 투자감소를 26%를 훨씬 상회하였다.

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전략이 가공 수출보다는 12억의 거대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현지시장 중시 전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특구우대정책의 변화에도 기인한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경제특구의 신설⁶⁾을 불허하는 한편, 현재 廣東省 등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특구 중심의 우대정책을 재조정하여 그간의 지역적 우대정책에서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특구자립정책을 추진하여 재정지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관세가 면세되던 생산설비 및 원자재 일부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특구우대정책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선진국들이 우대제도의 지역차별 철폐를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낙후된 내륙지역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국영기업들의 불만도 증가하기 때문이다.⁷⁾

III. 외자도입정책

1979년 12월에 개최된 제11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1기 3中全會)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 채택됨으로써 외자유치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외자도입은 크게 1)외국 정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차관, 2)합자, 합작, 독자(100% 외자 형태) 등의 '三資企業'⁸⁾과 공동개발(보통 석유공동개발), 3)상업신용(commercial credit:리스, 보상무역, 위탁가공.조립)등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그러나 개방 초기에는 외자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외자는 대부분 차관도입으로 조달되었다. 한편 연해지역을 따라 대외개방지역이 확대되고 직접투자 관련 법규와 우대조치 등 투자환경이 점차 정비되면서, 직접투자의 도입이 촉진되었다.

6) 최근에(1995.5.9) 중국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河北省 張家口市와 28개 현을 외국인들에게 개방키로 결정함으로써, 중국의 개방지역은 모두 1,176개로 늘어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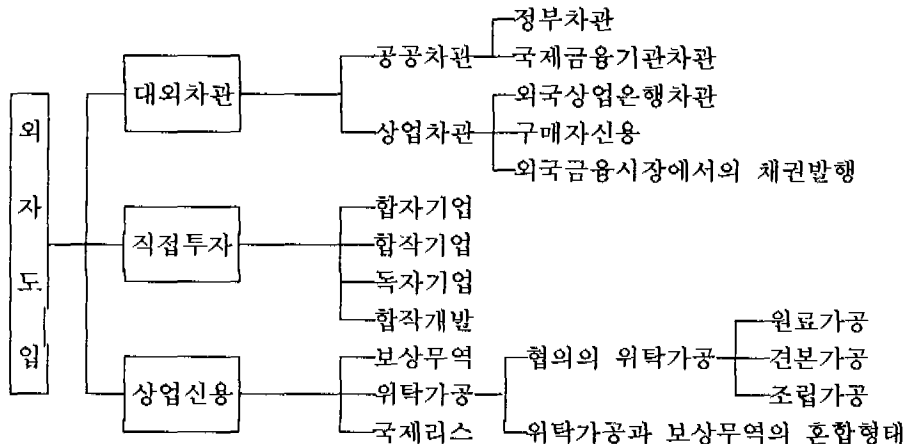
7) 중국은 특구가 몰려있는 연안지방과 내륙지방간의 경제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경제특구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정책의 역점을 특구중심이 아닌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바꾸어 균등한 경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을 이행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1995.5.19)

8)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s) : 합자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기초로 설립된 중국내 법인으로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합자기업은 합자쌍방이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고 출자액 한도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며, 설립계약에는 「섭외경제계약법」이, 설립이후 기타 중국기업과의 계약에는 「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

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s) :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중국기업 법인으로 유한책임공사로 등록하거나, 법인형태를 취하지 않고 위원회 형식으로 계약에 의거 운영되는 2가지 형태가 있다.

독자기업(Fully Foreign-Owned Enterprises) : 「외자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100% 외자의 중국기업 법인으로 경영관리에 있어 완전 독립이 허용된다. 조직과 운영은 법률상 합작기업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립허가 신청은 직접 제출한다.

<그림 1> 중국의 외자도입 형태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중국편람」, 1994, p.403.

1.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제도의 개선

1979년 7월에 대외개방정책의 상징이었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 제정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법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4년후인 1983년 9월에는 「합자기업법 실시세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이윤 발생 후 2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토록 하였다. 1986년 1월에는 국무원이 「합자경영기업의 외환수지 균형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선진기술 도입 제품과 수입대체제품에 대해 국내판매를 인정함으로써 엄격히 규제해 왔던 국내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다. 10월에는 선진기술기업과 제품수출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감면, 토지사용료 경감, 자금의 우선적 공급 등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는 22개조의 「외국인 투자 장려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리고 1986년 4월에는 「외자기업법」을 제정하여 독자기업의 설립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1990년 4월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개정하여 1)외국인 董事長 인정, 2)무상몰수에 대한 위협제거, 3)합자기간 제한의 철폐 등 합자기업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2개의 토지관련 법규를 공포하여 외국인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와 외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부동산개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자금부족 현상으로 인해 獨資企業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0년 12월에는 「외자기업법 시행세칙」과 함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을 제정하여 합자, 합작, 독자기업의 세율을 통일함으로써 독자기업의 설립이 더욱 증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⁹⁾

9) 양평섭, 안종석,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중투자」, 19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p.20 참조.

2. 외국인 직접투자의 도입단계

중국은 1979년부터 외자도입의 한 방식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개방 초기에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자가 거의 차관도입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그후 연해 지역을 따라 대외개방지역이 확대되고 직접투자 관련 법제와 우대조치 등 투자환경이 점차 정비되면서, 차관에 비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직접투자의 도입이 촉진되었다. 최근 중국의 외자도입 정책도 직접투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차관과 직접투자의 비중을 보면 대외개방이 시작된 1979년부터 투자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2년까지는 차관도입이 직접투자보다 많았으며, 1983-85년 기간에는 직접투자가 차관도입을 상회하였다. 1986년부터 외채가 급격히 증가한 1988년까지는 차관도입이 직접투자를 상회하였으나, 외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1989년부터는 직접투자가 차관도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1979년부터 시작된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2년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⁰⁾. 1979년부터 1994년말까지 중국이 허가한 외국인 투자계약은 22만 1,718건에 3,033억 달러에 달했는데, <표 1>에서와 같이 그 중 83%인 2,510억 달러가 1992년 이후에 승인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43%, 27%씩 감소한 47,490건, 814억 달러에 그쳤다¹¹⁾. 그러나 1994년의 실제외자이용액은 458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17.6%가 늘어났고, 그중 외국인기업의 직접투자액은 338억 달러로서 31%가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1994년말 누계로 건수는 221,718건, 계약액은 3,03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94년말 현재 기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20.6만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결과 1979-1994년 누계 차관도입 계약액은 966억 달러로 전체 외자도입 계약액의 23.7%를, 직접투자 계약액은 3,033억 달러로 74.6%를, 보상무역 등 기타 외국인 투자는 68.3억 달러로 1.70%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10) 1993년 말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채무보고(World Debt Tables)」는 '중국은 이미 개도국 중 최대의 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2년 중국이 도입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실행금액 기준으로 110억 달러였고, 1993년에는 15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세계은행은 추계하였다.

11) 1994년 대중 외국인투자가 감소한 요인으로는 1) 1993년의 지나친 투자, 2) 중국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전환, 3)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4) 외자기업에 대한 통제 및 감독 강화, 5) 중국경제의 장래와 중국정부의 개혁추진 의지 및 능력, 정치, 사회적 불안 가능성, 6)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들의 해외투자대상국으로의 부상 등으로 보인다. 박월라, 중국동향,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7.

<표 1> 중국의 외자도입 추이 (단위:억 달러)

		총 계		대 외 차 관		외 국 인 직 접 투 자			기 타 외국인 투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계약금액	실행금액	
제 1 단 계	'79-82	949	205.48	27	135.49	922	60.10	11.7	9.89
	1983	522	33.80	52	15.13	470	17.32	6.4	1.35
	1984	1,894	47.91	38	19.16	1,856	26.51	12.6	2.24
	소 계	3,365	287.19	117	169.78	3,248	103.93	30.7	13.48
제 2 단 계	1985	3,145	98.67	72	35.34	3,073	59.31	16.6	4.02
	1986	1,551	117.37	53	84.07	1,498	28.34	18.7	4.96
	1987	2,289	121.36	56	78.17	2,233	37.09	23.1	6.10
	1988	6,063	160.04	118	98.13	5,945	52.97	31.9	8.94
	1989	5,909	114.79	130	51.85	5,779	56.00	33.9	6.94
	1990	7,371	120.85	98	50.99	7,273	65.96	34.9	3.90
	1991	13,086	195.83	108	71.61	12,978	119.77	43.7	4.45
소계	39,414	928.91	635	470.16	38,779	419.44	202.8	39.31	
3 단 계	1992	48,858	694.39	94	107.03	48,764	581.24	110.1	6.12
	1993	83,595	1,232.24	158	112.51	83,437	1,114.42	275.2	5.31
	1994	47,646	924.82	97	106.68	47,490	814.06	338.0	4.08
	소계	180,099	2,851.45	349	326.22	179,691	2,509.72	723.3	15.51
누 계		222,878	4,067.55	1101	966.16	221,718	3,033.09	956.8	68.30

주 : 계약기준

자료 :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각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각호.

(1) 제1단계(1979-1984)

제1단계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개방 초기 5년간의 시험도입기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모두 3,248건에 104억 달러의 계약만 체결되었고, 실행액도 31억 달러에 불과했다. 직접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개방초기의 특성, 즉 제도 및 하부구조 등에 대한 징비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도 중국의 대외개방에 관망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투자는 주로 홍콩계 화교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역도 廣東省과 福建省에 설치된 4개의 경제특구에 집중되었으며, 기업형태는 합작기업이 주류로 투자회임이 빠른 임가공 및 소규모 노동집약산업에 집중되었다.

(2) 제2단계(1985-1991)

제2단계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의 6년간으로 총 38,779건, 42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계약이 승인되었고, 그중 절반정도인 203억 달러가 실제로 유입되었다. 특히 1985년도에는 전년대비 건수가 66%, 금액이 124% 증가하면서 제1차 대중 투자붐이 일어났다. 이것은 1983년 「합자기업법 실시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중국정부가 직접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고,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통제가 완화되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¹²⁾

또한 1984-85년 동안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보다는 호텔, 관광, 음식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기현상이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5년 후반기 이후 중국이 당시의 경기과열 및 과소비 현상하에서 투자재 및 소비재의 수입급증에 따른 외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외환통제 강화와, 무분별한 비제조업투자에 대한 제한정책은 외국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1986년에는 외국인 투자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같은 외국인 투자의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은 1986년 10월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자장려규정을 공포하였다.¹³⁾

그리고 중국은 1988년에 발표된 연해개방전략의 하나로 山東 및 遼東반도의 일부를 개방구로 지정하고, 海南島를 5번째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개방정책을 확대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88년 대중국 외국인 투자는 건수, 금액기준으로 각각 전년대비 166%, 132%씩 증가하면서 제2차 붐이 나타났다. 그후 天安門사태의 여파로 1990년까지 다소 주춤하던 외국인 투자는 上海 浦東신구의 개발계획 발표에 힘입어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었는데, 1991년의 경우 전년대비 약 80%가 증가하였다.

(3) 제3단계(1992-)

제3단계는 1992년 이후로 1994년 말까지 3년 동안 179,691건, 2,510억 달러의 투자가 허가되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외국인 투자가 특히 급증한 것은 1992년 鄧小平의 남부시찰시 지시한 개혁, 개방정책의 확대 조치 차원에서 발표된 주요 내륙도시와 변경도시의 개방, 부분적인 인프라와 3차산업의 허용 등 개방정책의 완화와 투자리수를 기록한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시장의 호황에 기인했다¹⁴⁾. 특히 중국이 전면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이 폭주하여 1992년에는 대외개방 이후 12년간에 이루어진 외자도입 계약건수를 넘는 48,764건에 달했으며, 1993년에는 계약건수로는 83,437건에 계약금액 1,114.42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경기과열에 따른 제반 부작용으로 중국정부가 조정정책을 실시하면서 1993년 하반기부터의 부동산개발 억제, 일부 항목에서의 중국측 자금 긴축 등으로 1994년에는 건수, 계약액 모두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나, 실행액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2) 이는 1984년 덩소평의 제1차 특구시찰시 지시한 개방정책의 확대 차원에서 14개 연해도시가 개방되고, 각 도시마다 특구에 준하는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되었으며, 1985년에는 珠江(廣東省), 長江, 민강(福建省) 델타지역이 개방된 것을 계기로 홍콩기업은 물론 일본과 구미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 한데 기인하고 있다.

13) 외자장려규정은 선진기술 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고용 및 임금결정의 자율권 보장, 내수시장에 대한 선별적 허용, 외환 수지균형 지원방안 등의 22개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14) 1992년에 개방된 지역은 내륙에 위치한 장강유역 5개 도시, 국경 13개 도시, 성도 18개 도시 등 36개 도시이며, 이와 더불어 중국은 27개의 국가고신기술(하이테크)개발구, 14개의 보세구를 설치하였고, 기존의 14개 경제기술개발구를 31개(92년 5개, 93년 12개)로 확대 하였다.

3.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

(1) 기업형태별 투자

1979년부터 1994년까지 16년간 인가된 계약기준 외국인 투자 221,718건 가운데 64%가 합자기업, 15%가 합작기업, 21%가 독자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기업형태의 구성은 합자기업이 48%, 합작기업이 26%, 독자기업이 25% 등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건수 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합자기업은 합작과 독자기업보다 소규모로, 독자기업은 합작기업보다 소규모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기별 진출추이를 보면 1985년까지는 합자기업이 전체투자의 60.5%를 차지하였다¹⁵⁾. 이는 개방초기 대중국 투자를 주도했던 홍콩기업들의 투자가 합작위주로 진행되던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 이후부터는 합자기업이 대중국 투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88년에 들어서면서는 독자기업의 진출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부터는 합자기업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¹⁶⁾. 이는 독자기업은 합자기업과는 달리 중국측 경영인력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이익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2> 기업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특성 (단위:건, 백만달러)

구 분	합자경영		합작경영		독자기업		합작개발		합 계	
	건 수	계약액	건 수	계약액	건 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 수	계약액
1979-82	83	127	793	4,129	33	332	13	1,422	922	60.10
1983	107	188	330	503	15	40	18	1,001	470	17.32
1984	741	1,067	1,089	1,484	26	100	-	-	1,856	26.51
1985	1,412	2,030	1,611	3,496	46	46	4	360	3,073	59.32
1986	892	1,375	582	1,358	18	20	6	80	1,498	28.33
1987	1,395	1,950	789	1,283	46	471	3	5	2,233	37.09
1988	3,909	3,134	1,621	1,624	410	481	5	89	5,945	53.28
1989	3,659	2,695	1,179	1,083	931	1,654	10	204	5,779	56.36
1990	4,091	2,704	1,317	1,254	1,860	2,444	5	194	7,273	65.96
1991	8,395	6,080	1,778	2,138	2,795	3,667	10	92	12,978	119.77
1992	34,354	29,129	5,711	13,256	8,692	15,696	7	43	48,764	581.24
1993	54,003	55,174	10,445	25,499	18,975	30,456	14	304	83,437	1,114.33
1994	27,858	39,347	6,628	20,293	12,989	21,493	15	206	47,490	814.06
합계	140,899	1,450	33,873	774	46,836	769	110	40	221,718	3,033.67
구성비	63.5%	47.8%	15.3%	25.5%	21.1%	25.4%	0.1%	1.3%	100%	100%

15)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개방초기에 향후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합작형태를 선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16) 1986년 4월 「외자기업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부진하였던 독자기업이 1988년 이후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여 1990년부터는 합작기업수를 능가하고 있다. 이는 趙紫陽 총서기가 1988년 1월 연해지구경제발전전략에서 종래의 삼자기업의 순서를 합자, 합작, 독자에서 독자, 합자, 합작 순으로 취급하는 외국경영자에 대한 위탁경영을 제안함으로써 독자기업의 설립이 급속히 증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주 : 집계관의 금액단위는 억 달러 임.

자료 :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각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각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세계경제」, 1995.6.

(2) 국가별 투자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4년말까지의 총 투자계약 중 홍콩·마카오가 건수의 60%, 금액의 62%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대만(11.5%, 7.2%), 미국(6.8%, 6.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교계 기업의 투자가 전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그중 대만기업의 대중투자는 1988년 중국이 「대만 및 화교자본에 대한 우대 조치」를 발표한 후 개인 차원의 소규모 시험성 투자가 실행되다가, 1990년 대만정부가 대중국 간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5년만에 20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제2의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홍콩기업은 연해 개방지역 특히, 廣東省을 중심으로 하는 화남경제권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미국기업은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도시지역과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총 3,710건, 29억 달러로 금액기준으로 중국전체의 1.0%, 순위면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당 투자규모의 순위는 영국이 549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독일(264만 달러), 싱가포르(178만 달러) 등으로 유럽기업의 투자가 비교적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대만기업의 평균 투자규모는 각각 78만 달러와 86만 달러로 소규모로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특성 (단위 : 건, 백만 달러, %)

국 가	1994			1979-1994 누계			건당평균 투자
	건 수	계약액	실행액	건 수	계약액	실행액	
총 계	47,490	81,406	33,787	221,718	303,302	95,577	137
홍콩·마카오	21,389 (45.0)	40,545 (49.8)	15,877 (47.0)	133,802 (60.3)	187,764 (61.9)	54,395 (56.9)	140
대 만	4,429 (9.3)	3,449 (4.2)	2,268 (6.7)	25,411 (11.5)	21,886 (7.2)	7,324 (7.7)	86
미 국	3,035 (6.4)	3,580 (4.4)	1,456 (4.3)	15,054 (6.8)	18,240 (6.0)	6,693 (7.0)	121
일 본	2,228 (4.7)	3,516 (4.3)	1,730 (5.1)	9,410 (4.2)	12,450 (4.1)	6,933 (7.3)	133
싱 가 포 르	--	--	--	4,159 (1.9)	7,439 (2.5)	1,510 (1.6)	178
영 국	276 (0.6)	1,895 (2.3)	485 (1.4)	892 (0.4)	4,907 (1.6)	1,064 (1.1)	549
한 국	1,019	771	376	3,710	2,944	926	78

태 국	(2.1) --	(0.9) --	(1.1) --	(1.7) 1,843	(1.0) 2,626	(1.0) 552	141
캐 나 다	458 (1.0)	363 (0.4)	150 (0.4)	1,998 (0.9)	2,178 (0.7)	410 (0.4)	110
독 일	227 (0.5)	592 (0.7)	157 (0.5)	796 (0.4)	2,050 (0.7)	684 (0.7)	264

자료 :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각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각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세계경제」, 1995.6.

한국의 대중 투자는 1991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한·중 양국간 「차별관세방지협정(1992.2)」 및 「투자보장협정(1992.7)」이 발효되고, 1992년 8월에 국교가 정상화됨으로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년까지 55건에 72.2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 기업들의 대중 직접투자는 1992년 1년 동안에 269건에 221.9백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1,064건에 819.6백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총누계 2,126건에 1,816.2백만 달러로 단일국가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표 4> 한국기업의 연도별 대중투자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연 도	총 허 가			총 투 자			투 자 누 계	
	건 수	금 액	건당규모	건 수	금 액	건당규모	건 수	금 액
- 1988	2	3,400	1,700	0	0	0	0	0
1989	12	9,770	820	7	6,360	910	7	6,360
1990	38	54,493	1,430	23	15,974	700	30	22,122
1991	112	84,721	760	69	42,468	620	99	64,590
1992	269	221,886	820	171	141,161	830	270	205,113
1993	629	622,349	990	376	262,234	700	645	465,020
1994	1,064	819,542	770	835	630,701	760	1,475	1,085,941
1995	416	551,986	1,327	331	307,047	928	1,802	1,389,807
합 계	2,542	2,368,147		1,812	1,405,945			

- 주 : 1) 허가는 한국은행에서 허가한 건수 및 금액임.
 2) 투자누계는 청산 등으로 철회한 투자 10건을 제외한 통계임.
 3) 1995년은 1월-6월까지의 통계임.
-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각호.

(3) 지역별 투자

1993년 말까지 인가된 전체 외국인 투자의 진출지역은 건수기준으로 80%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최초의 투자유치지역으로 설정된 廣東省이 건수기준으로 26.1%, 금액기준으로 33.7%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江蘇省(11.7%,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廣東省은 홍콩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업종에 있어서는 섬유, 의류, 전자, 식품가공 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향형 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50%를 상회하던 廣東省의 투자유치 비중은 연해지역이 개방된 1984년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2년 부터는 20%대로 떨어진 반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江蘇省, 山東省, 福建省, 遼寧省 등으로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江蘇省, 上海市 및 浙江省을 포함하는 長江델타지역은 전체투자의 20%를 흡수하면서 廣東省 다음의 제2대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향후 중국경제의 최대 핵심인 이 지역으로의 투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내륙지역으로의 투자는 1993년 만 현재 건수로 17.7%, 금액으로 18.9%에 불과하나, 1992년 중국이 내륙도시를 개방한 이후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내륙지역은 四川省, 湖北省, 黑龍江省, 河南省 등이다.

<표 5>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특성(1979-1993)

	건수(건)	구성비(%)	금액(억 달러)	구성비(%)
전국합계	174,228	100.0	2,219	100.0
연해지역 계	143,343	82.3	1,799	81.1
광둥성	45,388	26.1	747	33.7
강소성	20,370	11.7	198	8.9
산둥성	13,083	7.5	125	5.7
북건성	12,794	7.3	125	5.6
절강성	8,192	4.7	74	3.3
요녕성	7,915	4.5	77	3.5
북경시	7,513	4.3	104	4.7
상해시	6,949	4.0	134	6.0
내륙지역 계	30,885	17.7	420	18.9
사천성	4,040	2.3	45	2.0
호북성	4,001	2.3	33	1.5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각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세계경제」, 1995.6.

한국기업의 대중 직접부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環渤海 지역이 전체 허가금액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동북부 지역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중 직접투자는 渤海灣 및 東北지역에 집중되어 있다(<표 6> 참조). 특히 渤海灣 지역의 山東省과 天津市 그리고 동북지역의 遼寧省이 전체 50%를 상회하고 있다.

<표 6> 한국기업의 대중 지역별 투자 현황(허가액 기준) (단위:건, 천 달러,%)

	-- 1993		1994		1995. 1-6		누 계		비 중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발해만지역	502	583,787	464	397,504	189	285,566	1,156	1,266,917	53.4
산동성	299	382,238	246	206,859	97	140,824	642	729,921	30.8
천진시	108	116,192	108	112,277	47	80,499	263	308,968	13.0
북경시	69	60,430	76	62,457	29	55,860	174	178,747	7.5
하북성	26	24,927	34	15,911	16	8,383	77	49,281	2.1
동북지역	403	266,032	430	191,591	171	83,794	1,004	541,417	22.9
요녕성	223	127,832	231	118,545	97	55,593	551	301,970	12.8
길림성	100	47,229	142	50,641	53	18,966	294	116,836	4.9
흑룡강성	80	90,971	58	22,405	21	9,235	159	122,611	5.2
화중지역	74	73,112	93	120,057	35	148,151	202	341,320	14.4
강소성	44	47,358	45	67,436	16	59,353	105	174,147	7.4
상해시	19	18,612	34	47,489	11	85,966	64	152,067	6.4
절강성	11	7,142	14	5,132	8	2,832	33	15,106	0.6
화남지역	54	60,677	49	41,606	7	26,604	110	128,887	5.5
광둥성	41	42,814	25	33,952	6	14,644	72	91,410	3.9
북건성	11	17,063	20	4,254	0	2,100	31	23,417	1.0
해남성	2	800	4	3,400	1	9,860	7	14,060	0.6
내륙지역	29	13,011	27	68,784	14	7,871	70	89,606	3.8
합 계	1,062	996,619	1,064	819,542	416	551,986	2,542	2,368,147	100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1995.8.

(4) 업종별 투자

1993년말 현재 인가된 17만여건의 외국인 투자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건수의 74%(금액 기준은 53%)가 광공업으로 수위를 차지하며, 제2위는 부동산 공공서비스로 10%(금액 33%), 다음은 상업, 음식업 4%(금액 4%)로 이들 세 업종에 약 90%가 집중되어 있다(<표 7> 참조). 1979-1985년 동안 광공업은 전체 투자 건수의 43%, 금액의 26.4%에 불과했던 반면, 부동산 공공사업의 투자는 전체 건수의 13%, 금액의 29%를 차지하면서 금액기준으로는 제조업 투자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부터는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구조 조정 노력에 힘입어 광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급증하면서 1991년 이후에는 전체 투자의 80%를 상회하였다. 광공업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은 국무원이 1986년에 발표한 「외국인투자 장려규정」에서 선진기술기업과 수출기업을 우대하고 내수 위주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제조업의 급증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던 상업, 음식업 투자는 1992년 부터는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 완화에 힘입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 되면서, 그 비중이 1991년에 1.4%에서 1992년 2.1%,1993년 4.1%로 상승하여 중국경제의 과열현상은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표 7>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특성(1979-1993)

	1979-85		1986-90		1991-93		1979-9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6,321	149.2	22,728	240.4	145,101	1,922.7	174,228	2,219.0
광공업 비중(%)	42.7	26.4	85.8	67.7	73.6	50.4	74.0	52.7
농림축산업	445	5.1	814	6.4	3,046	20.8	4,305	32.3
광공업	2,696	39.4	19,498	162.7	106,851	968.7	129,045	1,170.8
건축업	344	2.6	231	4.7	4,369	58.5	4,944	65.8
교통, 통신업	260	2.5	311	2.3	1,454	31.3	2,025	36.1
상업, 음식업	791	13.2	354	3.7	6,583	62.1	7,728	79.0
부동산, 공공서비스	816	43.7	1,006	45.9	6,159	633.6	7,981	723.2
기 타	969	42.8	514	14.6	16,639	147.7	8,202	111.8

주 : 전체 직접투자에 대한 제조업 투자 비중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각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세계경제」, 1995.6.

한국기업의 대중 직접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대중 직접투자 중에서 제조업 부문의 비율이 허가액 기준으로 건수로는 86.8%, 금액으로는 8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행기준으로 보면 건수로 94%, 금액으로는 92%로 더욱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의복, 조립금속, 신발, 가죽 등의 노동집약적 정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 8> 한국기업의 대중국 업종별 직접투자(허가액 기준) (단위 : 건, 천 달러, %)

업종별	-- 1993		1994		1995. 1-6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비 중
광업	9	4,450	5	2,665	1	4,425	15	11,540	0.5
임업	2	714	0	0	0	0	2	714	0.03
수산업	15	5,034	12	3,514	1	209	28	8,757	0.4
제조업	981	926,729	864	695,768	362	431,417	2,207	2,053,914	86.7
건설업	4	9,898	8	18,827	6	23,275	18	52,000	2.2
운수보관업	5	6,535	13	21,969	1	1,425	19	29,929	1.3
무역업	7	2,380	28	9,222	3	1,118	38	12,720	0.5
기타	39	40,879	134	67,577	42	90,117	215	198,573	8.4
계	1,062	996,619	1,064	819,542	416	551,986	2,542	2,368,147	100.0

주 : 비중은 금액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1995.8.

4.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

앞에서 분석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에 근거하여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계약실적에 비해 실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이다. 1994년 말 누계에 근거한 평균 실행비율은 31.6%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투자가 급증한 1992년 이후에 실행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둘째, 건당 평균투자규모가 137만 달러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투자규모가 증대하는 현상을 보여 1994년에는 건당 171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9%나 확대 되었다.

셋째, 투자업종에 있어서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부동산 등 미생산적 서비스업에 집중되

는 경향이 있어 신진기술업종의 경우에는 제한된 투자만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다. 1993년 말 현재 인가된 17만여건의 외국인 투자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건수의 74%(금액 기준은 53%)가 광공업으로 수위를 차지하며, 제2위는 부동산 공공서비스로 10%(금액 33%), 다음은 상업, 음식업 4%(금액 4%)로 이들 세 업종에 약 90%가 집중되어 있다.

네째, 1993년 말까지 인가된 전체 외국인 투자의 진출지역은 건수기준으로 80%가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최초의 투자유치지역으로 설정된 廣東省이 건수기준으로 26.1%, 금액기준으로 33.7%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江蘇省(11.7%, 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994년말까지의 총 투자계약 중 홍콩 마카오가 건수의 60%,금액의 62%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대만(11.5%,7.2%), 미국(6.8%,6.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화교계 기업의 투자가 전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廣東省은 홍콩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업종에 있어서는 섬유, 의류, 전자, 식품가공 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향형 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분석해 보면 외국기업의 대중국투자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확대되었지만, 중국이 기대했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중점을 과거의 지역별 정책에서 산업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3년 11월 14기 3中全會의 결정은 외자유치의 중점을 기초설비, 기초산업, 첨단기술산업 및 노후기업의 기술개조,수출형 기업 등에 두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밝힌 중점적인 외자유치 항목은 농업 종합개발 항목 및 외향형 농업, 기초시설, 기초산업, 자본기술 집약형 및 첨단기술 항목, 대.중형 국유기업의 기술개조, 수출가공업 등이다. 또한 금융, 상업, 물자, 외국무역, 운수업 등 서비스산업은 각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유치정책의 조정으로 중국의 외자도입정책은 1)에너지, 기반시설 2)다국적 기업, 대재벌 3)하이테크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외자도입정책은 주로 경제특구와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발구, 내륙경제개발구라는 개발지구에 따라 외자의 우선권을 주어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과 경제체제개혁의 심화에 따라 외자도입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중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원자재, 에너지 등 기반시설 및 구시가지의 개선, 토지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 외자를 집중하여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있다. 또한 새로운 외자도입정책에서는 국제적인 역량을 지닌 다국적기업과 대재벌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에 대한 편입속도를 가속화하여 정보, 자금, 시장, 관리를 국제적으로 교류하고자 한다¹⁷⁾. 그리고 자본과 기술집약형과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치중하여 중국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¹⁸⁾. 따라서 중국은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위주에서 안정과 효율성 제고방향으로 전환하여 1995년부터 외국인 투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선별적 외자도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양적확대에서 선별적인 투자유치로 실질적인 기

17) 중국은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여 1993년말까지 중국이 외국에 설립한 기업 수가 4,497개소,투자액은 51억 6천만달러로 120여개국에 진출하고 있다.

18) 중국은 외자기업의 대중투자에 있어 새로운 인가기준을 담은 「외자도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선별해서 인가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하였다. 즉 외자기업의 노동집약형 업종에 대한 투자는 산업기반이 낙후된 내륙지방 중심으로 투자를 허가하는 한편,생산능력이 부족한 소재산업이나 하이테크산업 등 기술집약형 업종의 투자에 대해서는 저리용자나 세금감면 등을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경호,중국동향,「지역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5.2.

여도를 높이고, 한편으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측 기업의 현물 출자시 국유자산의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국유자산 평가 관리제도, 외자측 기업의 현물 출자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사정하기 위한 외국기업 투자재산 감정관리 규칙, 외자기업에 대한 工商행정관리국의 감독, 검사를 강화하는 등기, 관리 강화 조치 등으로 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외자기업 관련제도 및 법규도 차례로 정비되고 있으며, 노부관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제 실시, 노동시간 제한, 노조설립 의무화(설립후 2년이내), 노동보험제도 및 안전,위생기준의 제정 등 복시후생 강화 등을 규정한 노동법도 공포되었다¹⁹⁾. 이러한 중국 투자환경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잠재시장으로의 부상으로 외국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대중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왔던 백화점 등 국내 도소매업, 운송, 경영컨설팅, 보험업 등 일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합작투자도 시험적으로 허용하였다. 따라서 국내 유통부문의 개방이 갖는 중요성은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형태에 있어서 일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의 생산효율형 투자와 함께 앞으로는 시장추구형 투자가 급속하게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각국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5. 외자기업의 역할

중국의 수출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수출에 대한 외자기업의 기여가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 외자기업의 수출액은 1985년의 2.7억 달러에서 1992년에는 174억 달러, 1993년에는 253억 달러, 1994년에는 347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동안 1.5%에서 20.4%, 27.5%, 28.7%로 높아졌다. 반면 외자기업에 의한 부품, 원재료의 수입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역수지 개선효과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⁰⁾. 이외에 외자계 기업은 자금, 기술, 경영관리기법의 도입 외에 수출시장 개척, 고용 및 지역경제발전 등 전반적인 면에서 중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처럼 중국의 수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할이 커지게 된 이유는 국유기업의 수출부진과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 때문이다. 외자기업이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北京, 山東省 등 북부지역은 대외개방이 다소 늦어졌던 관계로 아직도 그 비중이 20% 미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廣東省처럼 대외개방이 한 발 앞서 추진된 지역에서는 40%를 육박하고 있으며, 외자를 주축으로 개발을 추진해 온 심천경제특구에서는 그 비중이 무려 6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 개방 초기 중국의 수출상품은 주로 석유, 석탄, 농산물 등 1차 상품이었으나, 80년대에는 수출상품 구성상의 개선이 이루어져 완제품 수출비중이 50%이하에서 1993년에는 82% 수준으로 제고 되었다. 특히 외자기업의 수출상품 중 완제품 비중은 90%이상으로 중국 전체 수출상품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반면 외자기업의 무역형태가 원료수입가공, 위탁, 조립가공 무역이 대부분으로 원재료, 부품 조달 및 완제품 판매시장이 모두

19) 全人代 상무위원회는 국유기업, 외자기업을 포함한 진국의 모든 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중국 최초의 「노동법」을 통과시키고(1994.7.5) 추석령으로 공포하여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박월라, 중국동향,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8. 한편 중국정부는 「노동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을 1995년 3월25일 발표하여 5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하여 기존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였다.

20)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은 1993년도 4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입액의 40.2%를 차지하였다.

국외시장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요 수출품이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노동집약형이며, 주요 시장이 미국, EC, 일본 등으로 되어 있어 중국과 선진국간의 무역마찰을 야기시켜 중국 국내시장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표 9> 외자기업의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억 달러,%)

	중국의 대외무역			외자기업의 대외무역			비 중		
	수출입계(A)	수출(B)	수입(C)	수출입계(D)	수출(E)	수입(F)	D/A	E/B	F/C
1985	696.02	273.50	422.52	23.6	3.0	20.6	3.4	1.1	4.9
1990	1154.36	620.91	533.45	201.2	78.1	123.1	17.4	12.6	23.1
1992	1656.08	849.98	806.10	437.3	173.6	263.7	26.4	20.4	32.7
1993	1957.10	917.60	1039.50	670.7	252.4	418.3	34.3	27.5	40.2
1994	2367.00	1210.00	1157.00	876.5	347.1	529.4	37.0	28.7	45.8

자료 : 중국해관통계, 「대외경제무역년감」, 각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각호.

VI. 결 론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16년간 중국은 22만건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승인하였으며, 투자 실행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이 도입한 외국자본은 국내의 자금부족을 해결해 주고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방식의 이전을 통해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치중해온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투자유치정책은 무분별한 경쟁을 유발, 경기과열을 조장하고 산업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켰으며, 연해지역 우대정책은 지역발전 격차를 확대시켰다. 또한 노동집약적 소규모 투자기업들을 중심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노사분규가 빈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규모 외자 도입이 통화팽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1994년 이후부터 외자기업에 대한 회계, 재무감사 실시, 노동조건 강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정책과 외자유치정책의 연결하에 선별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외국인 투자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위주에서 안정과 효율성 제고방향으로 전환하여 1995년부터 외국인 투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선별적 외자도입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과거 무분별한 외자도입 정책으로 저임 노동력과 낮은 임대료 활용을 위한 생산기지 이전형 소규모 제조업을 대폭 양산하여 수출증대 및 대외개방의 이미지 제고는 이루어졌으나, 첨단기술 도입, 국내산업의 균형발전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들의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장려하는 반면, 공해유발 업종이나 자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방향의 지도에 관한 잠정규정」과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1995.6.27)」을 공포하였다.²¹⁾

이에따르면 중국이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는 18개로 우량품종 개발, 안전성 높은 농약, 비료 제조, 전자, 농업분야의 첨단기술 및 에너지 절감기술, 환경보존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신소재 개발 등이다. 또한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개발, 동심당, 교통망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및 서부지역 투자도 장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중국기술로도 독자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미 많은 외국기업들이 참여해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분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종, 중국의 희소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그리고 중국상품의 경쟁상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인가기준을 강화 또는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보안이나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부문의 외자도입은 엄격히 규제된다.

한편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화와 함께 외자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1)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체제가 접목되는 제도적 과도기로서 정책이 자주 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외자기업의 장기적 경영전략 수립과 추진이 어렵다.
- 2) 각종 법률과 규정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지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 3)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원료나 제품수송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4) 중국의 내수시장은 각종의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외국기업의 정상적인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많다.

이같은 문제집과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변화는 鄧小平 死後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긴축정책, 토지, 임금비용 인상 등 현지 경영여건 악화 등과 결합하여 대중 외국인투자가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잠재시장으로의 부상으로, 외국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대중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생산효율형 투자와 함께 앞으로는 시장추구형 투자가 급속하게 증대될 것이다. 이와동시에 각국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1) 중국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인가기준을 법규 형식으로 공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도목록'은 외국인 투자를 우대하는 '장려', 경우에 따라 투자를 인가하지 않는 '제한', 일절 인가하지 않는 '금지' 그리고 특정분야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하는 '인가' 등 4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1995.8. pp.80-93. 자료 참조.

참 고 문 헌

- 김경호,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실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3-13, 1993.12.
- 김시중 편, 「한중 경제협력의 신구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94-02, 1994.6.
-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4-03, 1994.10.
- 안중식,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실태와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3-01, 1993.6.
- 안중식, 「미·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3-09, 1993.12.
- 양평섭, 안중식,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중 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2-03, 1992.12.
- 오용석, 「중국의 기술도입 정책과 중·일 기술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07, 1993.3.
- 오용석, 「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36, 1993.12.
- 이보근, 「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연구보고 94-02, 1994.10.
- 이보근, 「중국의 개혁·개방에 관한 정치적 시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연구보고 93-02, 1993.12.
- 이학규 외, 「중국의 주요 산업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86호, 1989.12.
- 이학규, 조영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중 경제교류」,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48호, 1992.4.
- 정영록, 「선진국의 대중 경제교류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11, 1992.6.
- 정영록, 「중국 수입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16, 1993.5.
- 조인태 외,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23호, 1994.8.
- 홍택기 외, 「우리나라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31호, 1994.12.
- 국제민간경제협의회, 「IPECK 북방경제」, 각월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방지역센터, 「CNAS 북방경제」, 각월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북방동향」, 각호.
- _____ , 「지역경제」, 각월호.
- _____ , 「중국편람」, 94.10.29.
- 대한무역진흥공사, 「월간 북방통상정보」, 각월호.
- 산업연구원, 「북방지역경제」, 각월호.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세계경제」, 각월호.
- 한국산업은행, 「중국의 최근 경제개혁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조사월보, 95.6.pp.33-90
- 한국은행, 「95년 해외투자 통계연보」, 95.6.23. 외환업무부, 도서자료 95-B-5.
- _____ ,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외투자현황과 향후 전개방향」, 94.4. 해외투자과.
- _____ , 「중국투자안내」, 95.3. 외환업무부.
- _____ , 「중국시장의 현황과 전망」, 94.6. 부산지점.
- _____ , 「중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94.8. 부산지점.
- _____ , 「중국경제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할」, 94.8. 부산지점

_____, 「세계의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95.7.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월간 북방동향」, 각호.

_____, 「중소연구」, 각호.

Blejer, Mario, David Burton, Steven Dunaway, and Gyorgy Szapary. 「China: Economic Reform and Macroeconomic Management」, Occasional Paper 76,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1.

Gelb, Alan, Gary Jefferson, and Inderjit Singh. "Can Communist Countries Transform Incrementally? The Experience of China"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Washington, D.C., 1993.

McMillan, John, and Barry Naughton. "How to Reform a Planned Economy: Lessons from China."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8(1), pp.130-43, 1992.

Lardy, Nicholas R. 「China in the World Economy」, IIE, Washington, D.C. 1994.

Tseng, Wanda, Hoe Ee Khor, Kalpana Kochhar, Dubravko Mihaljek, and David Burton. 「Economic Reform in China A New Phas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ccasional Paper 114, Washington DC. 1994.

Watson, Andrew, "China's Economic Reforms 1987-1993: growth and cycles",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vol.8 No.1 May 1994.

Yu, Guang Hua, "China's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28 No.6, December 1994, pp. 99-120.